

한화, 사막화방지 목적 태양광 완공

중국 링우시에서 시간당 전력 80kW 생산 ... 사막화 방지용 첫 사례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중국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후원 아래 중국 념샤(寧夏)자치구 링우(靈武)시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완공했다고 7월5일 발표했다.

7월4일 오후 중국 념샤자치구 링우시 바이지탄 자연보호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현장에서 열린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준공식에는 홍기준 한화솔라윈 부회장과 송정훈 한화차이나 상무가 참석했다.



중국은 양요린 UNCCD 아시아지역 조정관, 리젠쥔 링우시 당서기, 천쭈 후이 링우시장, 자오용칭 념샤자치구 임업국 당서기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화그룹이 기증하고 준공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시간당 80kW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된 전기는 링우시가 추진하고 있는 855만㎡의 양묘장에 공급된다.

링우시는 중국 서부대개발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사막화 진행속도가 빨라 중국정부가 사막화 방지를 위해

집중관리하는 지역이다.

한화그룹과 링우시가 추진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태양광에너지를 사막화 방지 사업에 활용한 최초 사례로 2011년 10월 창원에서 열린 UNCCD 10차 총회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홍기준 한화솔라윈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링우시가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저탄소 환경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유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05>